경산성, 신흥국에 '환경도시' 수출 지원

경제산업성은 3월, 중국 등 신흥국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 '환경도시'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18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한다고 발표

- 경산성의 이번 대책은 일본 기업이 현지정부와 환경도시 프로젝트의 기획이나 토지개발단계로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

□ 인프라・시스템 수출촉진조사 사업개요

○ 경제효과가 큰「스마트커뮤니티」, 개도국에서 수요 확대가 예상이 되는 금융, 교통, 물류, 방재, 전자정부 등 「스마트정보시스템」을 해외에서 수주하는 것이 목적

- 중국, 동남아, 인도, 중동, 유럽, 중남미 등 글로벌시장에서「스마트커뮤니티」,「스마트정보시스템」을 수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 분석과 기획 조사를 실시

* 스마트커뮤니티: 스마트그리드를 비롯하여 재생에너지, 도시교통, 물 처리, IT등의 기술을 융합시켜 새로운 환경도시를 구축

* 스마트정보시스템: 금융, 교통, 물류, 방재, 전자정부 등 통합정보시스템

○ 지원규모는 12억엔, 경산성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조사비용으로 1건당 수천만엔씩 지원하여 기획단계에서부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

- 이번 대책은 설비나 시스템 수출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토지매입 등 개발단계부터 참여시켜 기업유치까지 추진하는 것이 특징임

  * 사업 초기단계부터 참여함으로서 설비나 운영까지 수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목적

□ 스마트커뮤니티 조사사업에 선정된 기업

○ 경산성은 3월1일, 인프라수출 확대를 위해 약12억엔 규모로 18개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발표

- 대상 국가는 중국, 베트남, 태국 등 아시아지역으로 △저탄소도시개발, △홍수대책사업, △환경도시개발, △환경도시시스템 등이 포함
-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도시바, NTT Data, 미쓰비시중공업, 히타치 등 일본 기업은 사업화 조사를 우선 실시하게 되는데, 조사에 필요한 자금은 2011년 제3차 추경예산을 활용

○ 토지개발단계부터 참여하는 사업은 중국, 베트남, 태국의 스마트커뮤니티이고, IT기술을 활용하면서 에너지절약시설이나 시스템을 통합하여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계획

- 중국의 광주에서는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과 중국의 부동산기업이 제휴하여 저탄소 도시개발에 참여
- 태국에서는 이토츄, NTT Data 등이 콘소시움을 형성하여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(BEMS), 방수대책시스템을 활용, 공단의 환경도시 구축사업에 참여
- 베트남의 하이텍공업단지에서 추진 중인 환경도시화시스템구축사업에는 도시바 등 일본 기업 6개사가 공동 참여

○ 중국의 天津환경도시프로젝트에는 히타치제작소, 미쓰비시중공업, 도시바 등이 참여

- 이 사업은 중국의 국영송전회사 '국가電網'과 제휴하여 현지에서의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

* 캄보디아의 세계문화유산 환경도시개발, 호주의 분산형전원을 구비한 뉴타운개발프로젝트 등이 포함

〈지원 대상 사업〉

분 야	국 가	지원 대상 기업
토지개발부터 참여	중국・광주	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 등
	・ 저탄소형 도시개발계획	
	태국	이토츄, NTT Data 등
	・ 홍수대책사업, BEMS 등	
	베트남	도시바 등
	・ 하이텍공업단지 환경도시화	
중국국영회사와 연계	중국・天津	도시바 등
	・ combined heat and power활용 재생에너지사업	
	중국・天津	히타치제작소, 미쓰비시중공업
	・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送電網 운영	
신규 프로젝트	캄보디아	닛키 등
	・ 세계문화유산 환경도시	
	중국・杭洲	후지전기 등
	・싱가폴 기업과 연계하고 환경도시개발	
	인도네시아	NTT Data
	・ 공업단지에 환경도시 시스템 도입	
	호주	세키스이하우스
	분산형 전원 구비 뉴타운개발	

□ 시사점

○ 경제산업성은 전 세계 인프라 수요(30년까지 42조 달러)를 수주하기 위한 전략분야로 △환경 도시, △아시아 리사이클, △우주시스템, △재생에너지, △중국에서 물 비즈니스, △엔 차관・민간을 활용한 인프라조사 등을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공략

- 우리도 플랜트, 원전 등 강점이 있는 전략 분야를 선정하여, 민관이 공동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대상국가의 정부·기업들을 최대 활용전략을 수립하는 등 신흥국 인프라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

○ 우리정부 주도로 신흥국 인프라 연구회를 구성하여 △전략우선국가선정, △단독·협력 등의 대응방식, △사업전개상의 과제 등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하고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음

- 신흥국 인프라 수주를 위한 방안으로 △국가별 인프라수주 연구회 설치, △협력필요 국가와의 협력위원회 설립 등 세계 인프라 수요 스피드에 뒤처지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

- 특히, 기술기반, 자금력, 정보력이 강한 일본과의 자원·인프라 수주협력이 중요하며, 세계 인프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칭 '한·일 자원인프라 협력위원회' 설치도 필요

〈참고자료〉

日本經濟新聞(2012.3.1).「経産省, 環境都市　輸出に助成~中国やベトナムで18事業」
한일재단, 글로벌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한일연계 지원체제 구축(2012.2)